

中原地方의 深衣와 道袍에 關한 研究

A Study on Shymui and Dopo of Chung Won District

李 相 恩 · 元 明 心 · 李 明 淑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Lee, Sang Eun · Won, Myung Sim, Lee, Myung Sook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s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Costumes used in the Chung Won(中原) District through Shymui(沈衣) and Dopo(道袍) which was widely used as Confucian traditional costume. It was concluded that the costumes in the Chung Won district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Seoul area.

The reason for the similarity was due, in addition to nearness to Seoul, to the mixed cultural background during Sam Kuk(三國) dynasty and due to the influence of many returned scholars who are accustomed to the life of ruling class while in Government position in Seoul during Lee Dynasty(李朝).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Dopo in Chung Won District also is, unlike other area, very similar to Seoul. Dopo in An Dong(安東) and Kang Nung(江陵) Districts have no parting line in the back while that of Seoul area had parting line. The material used for the Dopo in An Dong area was mainly Sambae and in Seoul Moshi or Myung Ju was the major material for the normal occasion and Sambae was used for the Dopo for funerals.

I. 序 論

中原文化圈은 넓은 의미에서는 忠淸北道 남쪽의 永東郡 · 沃川郡을 제외한 全城과 北쪽으로 隣接道인 京畿 利川郡과 江原道の 原城郡 · 寧越郡 및 忠淸北道の 남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慶尙北道の 서북쪽 聞慶 · 醴泉 · 榮州 · 榮豊 · 奉化 · 安東 및 尙州 등의 市郡을 包括하고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忠州 · 中原郡 및 淸州 · 淸原郡 등으로 限定하고 있는데¹⁾,

이 論文에서는 中原文化圈을 忠州 · 中原郡 및 淸州 · 淸原郡 등으로 좁혀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이 論文에서의 研究目的은 朝鮮時代에 儒服, 禮服으로 널리 입혀졌던 深衣 · 道袍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中原地方의 전통적인 衣生活의 特徵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 論文에서의 研究方法은 中原地方의 전통적인 衣生活에 관한 文獻의 資料가 不足하여 中原地方에서 發掘된 深衣 · 道袍 遺衣를 他地方에서 發掘된 同類의 遺衣와 비교 검토하고, 深衣 · 道袍에 관한 文獻의 資料로 補充하여 中原地方의 衣生活의 特徵을 推論하려고 한다.

이 論文에서의 研究內容은 먼저 忠州에서 발굴된 1890年代 柳麟錫이 착용하였던 深衣

* 본 연구는 중원지역 발전 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金顯吉, 「중원의 역사와 문화」, 靑芝社발행, 1984, pp.179 - 180.

遺衣의 형태·구조를 거의 同時代에 착용되었던 다른 深衣의 형태·구조와 비교검토하고, 다음 忠北 淸原郡 文義面 後谷에서 出土된 1500年代의 傳朴將軍 道袍의 형태·구조를 다른 道袍 遺品の 형태·구조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II. 柳麟錫의 深衣

1. 深衣에 관한 일반적 고찰

中國에서는 深衣가 周代以前에 형성되어 漢代에는 諸侯로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深衣양식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魏晉南北朝時代로부터 점차 쇠퇴기를 맞아 胡服이 유행한 隋·唐代에는 士大夫간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단지 中單에 한하여 深衣制로서 그 脈을 이어왔다.

宋代에는 司馬光이 深衣制를 다시 정립시키고 朱子가 士大夫의 禮服으로 천거하여 다시 復興期를 맞이하였으며, 이 시기의 深衣 형태가 그 이후의 深衣制의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遼·金·元代 등 異民族의 통치기간에는 다시 쇠퇴하여 漢族의 士大夫와 道人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 明代에 다시 深衣가 애용되어 다양한 형태의 深衣가 제시되었다.

滿洲族이 건립한 清代에는 漢制 服飾의 착용을 禁하여 道士服과 士大夫服에 한정적으로 착용되었다.

위와 같이 中國에서는 深衣制가 王朝와 儒學의 변화에 따라 쇠퇴기와 부흥기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深衣가 三國時代에 傳來되어 凶服으로 喪禮·祭禮에 착용되었으나 高麗末期에 朱子學이 도입된 후부터는 朱子의 家禮에 의거하여 冠婚喪祭의 四禮服, 士大夫의 禮服 및 儒服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中國의 宋代 이후에 深衣가 儒學者들에게 널리 사용되었던 脈이 우리나라로 이어진 시기라고 할 것이다. 朝鮮時代에도 士大夫들에게 계속 착용되었고 朝鮮中期에는 禮學이 성행하여 朱子의 禮法에 따르고자 하였으므로 深衣는 儒學者들에게 四禮服 및 儒服으로서 中國에서보다 승상되어 번성기를 맞이 하였으며, 朝鮮後期 實學

者들에 의하여 새로운 형태의 方領深衣를 만들었다. 그 후부터 直領深衣와 方領深衣 두 형태가 함께 사용되었으며 高宗 21년에 소매가 넓어 행동에 불편하고 옛 制度와도 맞지 않는 것을 窄袖衣, 戰服, 絲帶로 바꾸도록 한²⁾ 이후 점차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지금까지 深衣가 발견된 것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1700年代初의 洪鑣宗 深衣³⁾,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700年代末의 李氏 深衣⁴⁾, 尹泰希 所藏의 1800年代末 尹肯鉉 深衣⁵⁾,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1900年代初 盧相益 深衣⁶⁾가 있다.

2. 毅庵 柳麟錫

毅庵 柳麟錫(1842 - 1915)은 字 汝聖, 號는 毅庵, 本貫은 高興이다. 堤川에서 성장하였으며 李恒老에게 배우고 從叔인 省齋 柳仲敷의 제자로서 그 學統을 이어받아 巨儒로 알려졌다. 1876년(高宗 13년) 日本과 丙子修好 條約을 체결할 때 반대 上疏를 올렸고, 1894년(高宗 31년) 甲午更張 이후 金弘集의 親日內閣에 적극 반대하여 義兵將으로 忠州·堤川 등지에서 싸웠다. 戰敗 후 滿洲에 건너가 있던 중 高宗의 召還으로 일시 堤川에 돌아왔다가 다시 滿洲로 들어가 西間島를 무대로 독립운동에 크게 활약하여 1909년(隆熙 3년) 海參崴에서 13道 義軍都總裁에 추대되어 李相高 등과 같이 豆滿江으로 쳐들어오려다가 日·露의 교섭으로 인하여 체포되었다.

그후 석방되어 韓日併呑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74歲를 一期로 奉天省 寬甸縣에서 逝去하였다.

2) 朝鮮王朝實錄, 高宗 21年 閏 5月 28日.

3) 이 深衣는 洪鑣宗(1647 - 1702)의 遺衣로서, 1968. 5. 20.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에서 분묘를 이장하던 중에 출토되었다.

4) 이 深衣는 17C末에서 18C 후반경에 생존 한 것으로 추정되는 李氏의 遺衣로서, 1991. 3. 초순경 忠北 中原郡 仰城面 中田里 山 11-1에 있는 골프장 건설지역에서 無緣故 墓를 이장하던 중에 출토되었다.

5) 이 深衣는 1800年代末 尹肯鉉이 착용하던 것이었다.

6) 이 深衣는 1900年代初 盧相益이 착용하던 것이었다.

經書에 밝아 昭義新編, 華東續綱目 등 저서가 많다.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復章을 받았다.⁷⁾ 위와 같이 朝鮮王朝 末의 儒學者이며 義士인 毅庵 柳麟錫의 影幀과 深衣 遺品을 보관하고 있는 柳然壽(현재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740에서 거주)는 바로 위 毅庵 柳麟錫의 曾孫이다(圖 1, 2).



圖 1. 毅庵 柳麟錫 影幀



圖 2. 柳麟錫 深衣

4cm, 4.5cm로 넓게 되어 있다.

4. 柳麟錫 深衣의 構造 用途

1) 옷감

中國에서는 深衣의 材料로서 漢代 鄭玄 이후 15升의 白細布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褐·絹 등도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5升의 白細布를 기본으로 하면서 苧·綿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 帛·綾·絹도 사용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李氏 深衣는 絹으로 되어 있고, 尹肯鉉 深衣는 麻布로 되어 있으며, 洪鎮宗 深衣와 柳麟錫 深衣는 白色 苧布로 되어 있다. 또한 深衣에 쓰이는 布幅은 2尺2寸으로 衣身의 품과 소매길이·常12쪽의 나비 등 치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朝鮮時代에는 이와 같이 넓은 布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中國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때로는 실정에 따라 國內의 좁은 布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柳麟錫 深衣는 布幅이 45cm이다.

2) 소매

柳麟錫의 深衣는 소매 폭이 衣길이(54.5cm)와 거의 같은 55cm이며, 길이는 布 1폭에 1폭을 더하였다. 尹肯鉉의 深衣에는 진동술이 길쪽으로 향하고 소매에 폭을 이은 곳도 길쪽으로 향하였으며 盧相益의 深衣에는 진동술과 소매에 폭을 더 이은 곳은 가름술로 처리되어 있는데, 柳麟錫의 深衣는 진동선으로부터 소매

3. 柳麟錫 深衣의 實測

柳麟錫 深衣를 實測하면 <圖 3>과 같다. 柳麟錫 深衣 구성을 同時代의 文獻의 資料인 士儀⁸⁾, 四禮輯要⁹⁾와 尹肯鉉, 盧相益의 深衣遺品(圖 4, 5)과 비교하면 다음 表 1과 같다.

柳麟錫 深衣의 衣身의 나비는 58cm로 넓은 편이며, 衣身의 길이도 54.5cm로 긴 편이다. 소매길이는 55cm로 길고 소매부리도 30.5cm로 넓으며 진동은 33cm로 보통치수이다. 깃나비도 5.5cm로 넓으며 裳의 길이는 83cm로 긴 편이다.

허리 둘레는 111.7cm로 작은 편이다. 깃과 소매부리, 裳의 端에 댄 襖의 넓이도 5.5cm,

7) 李弘植編 『增補 새 國史辭典』 P.913
光復會 忠北支會 『忠北의 愛國志士』 PP.45-46.
8) 許傳(1797 - 1886)이 1870년에 著述한 것이다.
9) 李陳相이 1906년에 著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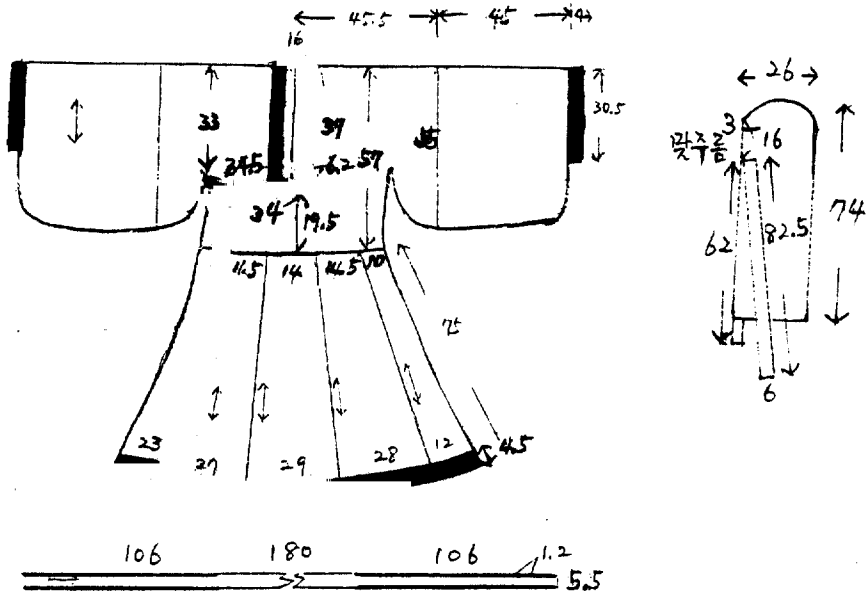


圖 3. 柳麟錫 深衣의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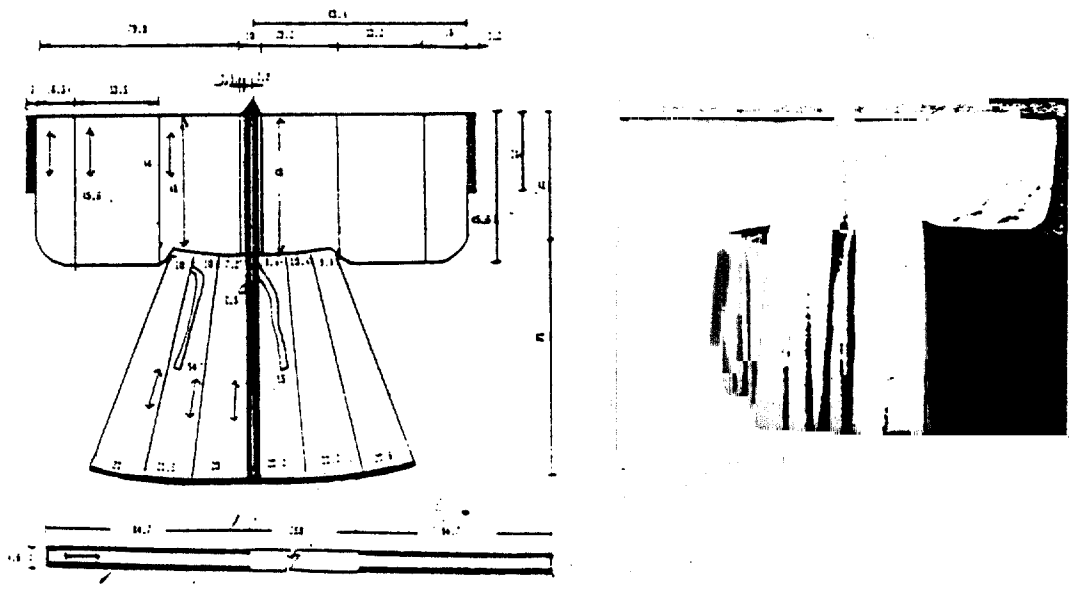


圖 4. 尹肯鉉 深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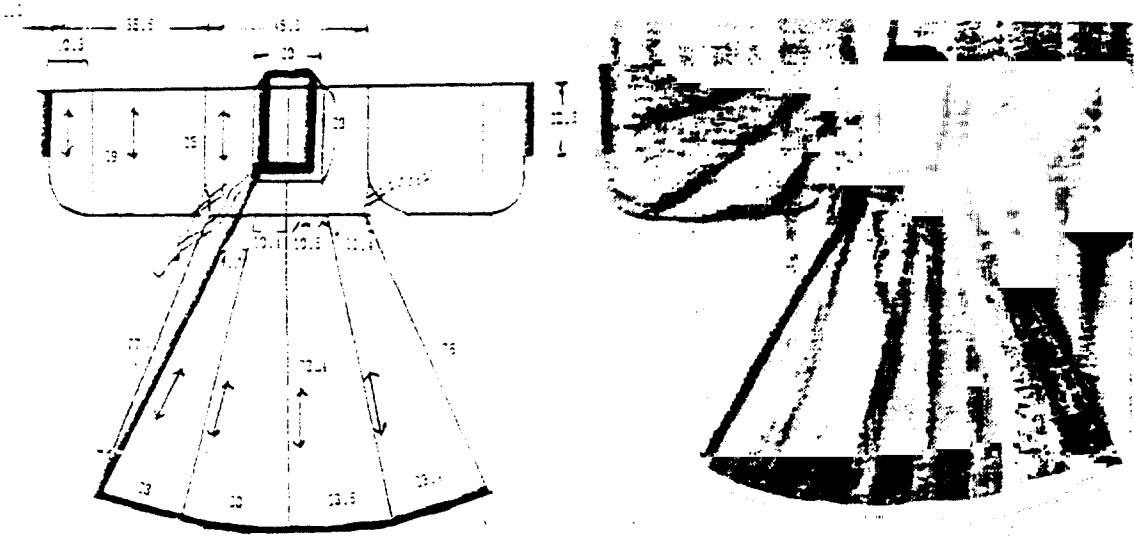


圖 5. 盧相益 深衣

쪽으로 16cm되는 부위에 솔기선이 식서처리되어 진동쪽으로 솔기를 격어 주고 있다.

3) 깃

깃은 直領과 方領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高麗時代 末에 朱子學이 전래된 이후 朱子의 說에 의거하여 直領이 기본이지만 朝鮮後期에는 구성상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중시하여 韓百謙(1552 - 1613), 朴珪壽(1807 - 1876), 許傳(1797 - 1886) 등 實學思想家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方領深衣가 만들어졌고, 朝鮮末期에 이르러 直領深衣와 方領深衣 두가지 형태가 널리 사용되었다.

1700年代의 李氏 深衣와 1800年代 末의 尹肯鉉 深衣가 直領인데, 1800年代 末의 柳麟錫 深衣와 1900年代 初의 盧相益 深衣는 方領이다.

또한 方領은 直布를 구부려 方形을 만들거나 혹은 처음부터 方形으로 재단된 경우가 있는데, 柳麟錫 深衣는 方形으로 재단하여 만들었다.

4) 裳

尹肯鉉 深衣의 裳은 前左右 각 3幅, 後6幅으

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盧相益 深衣와 柳麟錫 深衣는 裳이 前左右 각 4幅 後4幅으로 구성되어 있다.

5) 緣

같은 時代의 深衣인데도 尹肯鉉 深衣와 盧相益 深衣의 깃, 소매부리 및 裳의 단에 두른 緣의 넓이가 2.5 - 3cm인데 반하여 柳麟錫 深衣의 깃, 소매부리 및 裳의 단에 두른 緣의 넓이는 4 - 5.5cm나 된다.

6) 여밈

深衣는 고풍으로 여미게 되어 있으나 柳麟錫 深衣는 고풍이 없고 方領 깃의 右端에 형질으로 만든 매듭 단추 2개를 달아 여미게 하고 있다.

7) 附屬物

諸學者들의 家禮에 의하면 深衣에는 반드시 帶·幅巾·履를 附屬物로서 갖추어 착용한다고 하였다. 柳麟錫 深衣의 附屬物 遺品으로는 帶와 幅巾이 보존되어 있다.

<表 1>10)

資料		土儀	四禮輯要	尹肯鉉의 遺衣	盧相益의 遺衣	柳麟錫의 遺衣	
부위	나비	1尺 2寸	布2폭	68.5cm	45.8cm	58cm	
	길이	2尺 2寸	2尺2寸	41cm	37.5cm	54.5cm	
소매	나비	2尺 2寸	2尺2寸	45.5cm	39cm	55cm	
	진동	1尺 2寸	1尺	41cm	25cm	33cm	
	부리	1尺 2寸	1尺	24cm	23cm	30.5cm	
	길이	布1폭+반폭	布1폭+1尺	33.5(布폭)+ 16(반폭)cm	55.6cm+10.5cm	61cm	
깃	형태	方領	直領	直領	方領	方領	
	치수	깃나비2寸 關中(나비 8寸, 길이 1尺2촌)	깃나비2寸 關中(나비 4寸, 길이 1尺2촌)	5cm	깃나비5cm 關中(나비 20cm, 길이 29cm)	깃나비5.5cm 關中(나비 16cm, 길이 37cm)	
裳	쪽 수	前左	4	3	3	4	4
		前右	4	3	3	4	4
		後	4	6	6	4	4
		合	12	12	12	12	12
	쪽 나비	上	6寸	6寸	10cm	10 - 11cm	10 - 14.5cm
		下	1尺 2寸	1尺 2寸	21cm	29 - 30cm	12 - 29cm
		길이	복숭아뼈		75cm	73.5 - 77cm	83cm
	허리둘레	7尺 2寸		120cm	126cm	111.7cm	
	단둘레	1丈4尺4寸		251cm	355cm	320cm	
緣	깃	1.5寸	2寸	2.5cm	2.5cm	5.5cm	
	소매부리	1.5寸	1.5寸	3cm	2.5cm	4cm	
	裳의 단	1.5寸	1.5寸	2.5cm	2.5cm	4.5cm	
橫 衽 鈎 邊	위치	衽 : 袷		-	衽 : 袷	衽 : 袷	
	치수	길이 : 1尺 위 나비 : 4寸 아래나비 : 1尺2寸		-	길이 : 8.5cm 위 나비 : 8.6cm 아래나비 : 15.2cm	길이 : 19.5cm 위 나비 : 24cm 아래나비 : 25.5cm	
	布폭	2尺 2寸	2尺 2寸	-	-	45cm	
	기타			고름길이 55cm 고름나비 2.5cm	고름길이 25.32cm 고름나비 2cm	단추매듭	

(1) 帶

우리나라 諸學者들의 家禮에 의하면 모두 大帶를 착용한다고 하였다. 柳麟錫 影幀 (圖 1)에서도 深衣에 大帶를 착용하고 있다.

帶의 材料는 白縗을 쓰고 廣이 四寸이었다. 길이는 허리를 둘러 앞에서 묶어 양귀를 만들고 그 나머지는 내려뜨려 紳으로 하는데 紳의 길이가 裳의 밑단과 나란하게 한다.

검은 비단을 사용하여 紳의 양변 및 아래에 襖을 두른다. 그 襖의 넓이는 表裏 各 半寸이

다. 허리를 두르는 곳과 양귀를 맺는 곳은 검은 襖을 두르지 아니한다. 柳麟錫 深衣의 帶는 白色 苧布로서 나비가 5.5cm이고 길이가 392cm이며, 검은 명주로 양끝에서 106cm되는 부위까지 襖을 두르고 있다. 또한 深衣에는 帶를 매고 그 위에 반드시 五組帶를 매어 주는데 柳麟錫 深衣는 푸른색 술피를 帶위에 매어주고 있다.

(2) 幅巾

幅巾은 원래 庶人의 服이었으나 漢末에 이르러 士大夫의 服이 되었다. 宋에 이르러 司馬光이 深衣와 幅巾을 燕居의 冠服으로 쓰고 朱

10) 1尺은 布帛尺으로 42cm이고, 1寸은 1/10尺이다.

자가 또한 그의 家禮에 推舉한 이래로 儒者사이의 禮服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家禮와 함께 들어오면서 儒者간에 더욱 流行되었다. 柳麟錫 影幀에서도 幅巾을 착용하고 있다(圖 1).

幅巾은 대개 黑繪六尺을 가지고 만든다. 이 幅巾은 현재에도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의 褖服에 사용되고 있다. 柳麟錫 幅巾은 검은 명주로서 나비가 26cm, 길이가 74cm이다. 또한 왼쪽 끈 길이는 82.5cm이고 오른쪽 끈 길이는 62cm이다.

(3) 履

신의 색은 원래 冠과 같이 하였으므로 深衣는 幅巾과 같은 색인 黑履를 신었다. 黑履는 흰색으로 線을 하였다. 재료는 여름에는 縐으로 하고 겨울에는 皮를 사용하였다. 柳麟錫 履는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다.

8) 用途

深衣는 朝鮮時代에 儒學者들이 冠婚喪祭服 및 儒服으로 愛用하였는데, 柳麟錫 深衣는 보관자의 傳言에 의하면 평상시 儒服으로 착용하던 것이다.

한편 毅庵 柳麟錫 집안에서는 柳麟錫 深衣를 그대로 본 따서 만들어 着用하고 있는데, 女子深衣는 玉色 바탕에 紫色襖을 둘러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며느리가 見舅姑禮 時 深衣를 입고 幣帛을 드리며 시어머니도 深衣를 입고 幣帛을 받는다고 하며 壽衣로도 深衣를 사용한다고 한다.

5. 柳麟錫 深衣의 特徵

柳麟錫 深衣는 앞서와 같이 同時代의 다른 深衣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特徵을 찾아 볼 수 있다.

(1) 同時代의 다른 深衣들은 진동술과 소매에 폭을 더 이은 곳이 가름술로 처리되어 있는데, 柳麟錫 深衣는 진동선으로부터 소매쪽으로 16cm되는 부위에 술기선이 식서처리 되어 진동쪽으로 술기를 꺾어 주고 있다.

(2) 柳麟錫 深衣는 同時代의 다른 深衣들에 비하여 깃, 소매부리 및 裳의 단에 두른 緣의 넓이가 거의 2배가 될 만큼 매우 넓다.

(3) 同時代의 다른 深衣들은 고름으로 여미게 되어 있으나 柳麟錫 深衣는 고름이 없고

깃의 右端에 형겹으로 만든 매듭단추 2개를 달아 여미게 하고 있다.

6. 中原地方의 深衣에 關한 特徵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深衣는 제작에 관하여 制度化되어 있어 柳麟錫 深衣가 그 형태·구조에 있어 同時代의 다른 深衣들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柳麟錫 深衣가 同時代의 다른 深衣들과 비교하여 술기선 처리, 緣의 넓이, 여밈方法에 있어 特色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中原地方의 深衣에 關한 特徵이라고 斷定할 수 없다. 따라서 中原地方의 深衣에 關한 두드러진 特徵은 없다 할 것이다.

III. 傅朴將軍의 道袍

1. 道袍에 關한 일반적 고찰

道袍는 朝鮮朝 中期 이후 儒士, 儒生, 士人の 便服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文獻上으로는 宣祖 40年(1607年) 李弘望이 草綠袂道袍를 입었다는 기록이 처음 나온다¹¹⁾. 또한 孝宗實錄에 의하면 道袍를 입는 制度는 壬辰亂 이후부터 있었다고 한다.¹²⁾ 그러나 실제의 生成時期는 그 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傅朴將軍墓에서 出土된 道袍의 着用年代를 壬辰亂 前¹³⁾으로도 보고 있으므로 문헌상의 기록보다 약간 以前일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宣祖代에는 白衣禁亂에 대한 論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道袍의 색을 白色 또는 靑色으로 본다면, 이렇게 白色을 禁하는 시기에 生成되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道袍가 壬辰亂 후에 생겼다면 전쟁후 문란하여진 服飾制度의 整制를 호소하는 여러 기록(宣祖 31年 11月, 仁祖 元年 3月, 仁祖 9年 9月)중에도 새로이 생성된 道袍에 대한 論議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社會的背景으로 볼 때 生成時期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리 오래 전으로 보

11) 『宣祖實錄』 卷二百四, 四十年四月

12) 『孝宗實錄』 卷十八, 八年正月

13) 劉頌玉 『朝鮮時代 出土服飾을 通해본 男子袍 研究』 大同文化研究 第18輯, p.177.

기는 어렵고 文運이 道學쪽으로 기울었던 中宗代일 것¹⁴⁾으로 추측되며, 現在까지는 道袍의 最古遺衣로 알려져 있는 傳朴將軍 道袍 以前의 것으로 推定되는 여러 遺衣중에서 帖裏나 直領은 보이면서 道袍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宣祖前이라고 하여도 그리 오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道袍의 형태를 살펴보면 소매는 廣袖이고 몸통은 4幅으로 되어 있으며 뒤에 展衫이 달려 있어서 이것이 道袍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 展衫의 발생에 대하여 韓元震의 「南唐草稿」에서 「士大夫의 出入上服을 爲官者가 입는 直領公服으로 할 수 없으므로 直領에 따라 그 제도를 조금 변경하여 道袍를 만들었다. 道袍의 前面은 直領과 같으며 後面은 直領이 二葉衫을 다는 것에 비해 道袍에는 衣裏汗版에 左右로 展付한 것이 다르다」¹⁵⁾고 하였다(圖 6).

道袍는 朝官 士庶人이 平常時 表衣로 착용하였으며, 儒生은 公服이나 祭服으로 착용하였다.¹⁶⁾

이 道袍는 하층계급의 착용이 금지되었지만 禁制는 그다지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다.¹⁷⁾ 이 道袍는 朝鮮末 高宗 21年の 服制 變通時 直領, 褈衣 등 다른 廣袖衣와 함께 두루마기로 대체되었다.¹⁸⁾

2. 傳朴將軍 道袍

傳朴將軍 道袍는 1980년 4월에 대청댐 공사로 인하여 그 水沒地域내의 古墳을 이장하던 중 忠北 淸原郡 文義面 後谷里에서 朴將軍 墓라고 傳하여지는 雙墳에서 出土된 것이다. 단지 朴將軍 墓라고만 傳하여질 뿐이므로 그

着用年代가 확실하지 아니하나 道袍와 함께 出土된 官服, 褈衣 등 다른 遺衣의 形態와 質感, 色彩, 文樣 등으로 미루어 보아 壬辰倭亂을 前後하여 입혀졌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¹⁹⁾

傳 朴將軍의 出土道袍는 現存 最古의 것이며, 현재 충북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1981년 重要민속자료 제117호로 지정되었다.²⁰⁾

3. 傳 朴將軍 道袍의 實測

傳 朴將軍 道袍를 實測하면 <圖 7>과 같다. 傳 朴將軍 道袍의 구성을 1670年頃 착용추정되는 洪克家 道袍²¹⁾(圖 8), 1740年頃 착용추정되는 英祖大王 道袍²²⁾(圖 9), 1900年頃 착용추정되는 昌德宮 所藏의 道袍²³⁾(圖 10) 비교하면 다음 <表 2>와 같다.

4. 傳 朴將軍 道袍의 構造·用途

1) 옷감

道袍의 옷감으로는 木棉·苧·麻·紗·緞 등 여러 織物을 사용하였다. 傳 朴將軍 道袍는 거친 무명(綿)으로 되어 있다. 그 材質은 무명인 것으로 보아 그 기능상 儀禮的 衣服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²⁴⁾

14) 金東旭, 「韓國服飾史辨證」 博物館新聞, 1983. 6. 1. p.3.

15) '愚謂士子之出入上服不可以 爲官者所服直領公服故 就直領稍變其制爲道袍也 道袍之後面一如直領 更無可考 其後面爲直領者 直領之二葉衫於道袍 展附於衣裏汗版左右者然也 此以道袍後衣表裡之制 特著以示之也'

1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四十五, 道袍辨證說.

17) 丁若鏞, 「牧民心書」 卷八, 禮典六條, 辨等.

18) 「高宗實錄」, 卷二十一, 二十一年閏五月.

19) 成均館大學校 敎授인 劉頌玉은 1984. 成均館大學校 大同文化研究院 發刊의 大東文化研究 第18輯 「朝鮮時代 出土服飾을 통해 본 男子袍 연구」 p.156에서 1592年으로 추정하고 있다.

2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편, 하), 1986, p.146.

21) 1974년 慶北 金陵郡 月谷面에서 官職을 지낸 바가 없는 安東 儒林이며 부림 洪氏의 14代祖인 洪克家의 墓에서 出土되었다. 着用年代는 1670年頃으로 추정된다. 1979年 重要민속자료 4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安東大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洪극가의 12대손인 洪무열씨가 「중요민속자료 보고서」 이후 사용되어오던 '홍극가'의 '加'字가 '家'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옴에 따라 「박물관도록」에 수정 기록한바있다.

22) 1740年頃 朝鮮王朝 21代 王인 英祖大王이 착용하던 道袍로서 慶北 連成郡 八公山 把溪寺에 소장되어 있다. 把溪寺는 英祖의 出生祈願을 했던 절로 종교적 의미로 시주된 것이다. 1987년 重要민속자료 220호로 지정되었다.

23) 着用者는 확실치 않으나 1900年頃 착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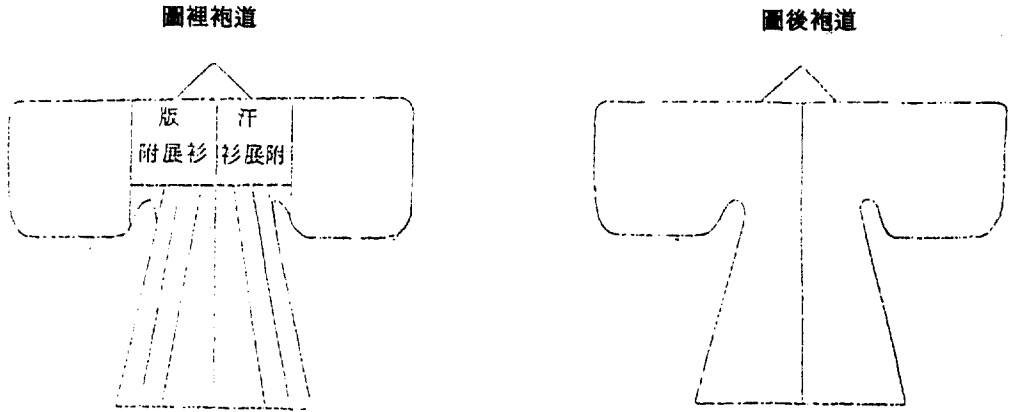


圖 6. 道袍의 後裡圖
(출처 : 南唐草稿)

<表 2>

測值(cm)	道袍名	傅朴將軍	洪克家	英祖大王	昌德宮
	着用年代實	1592年경	1670年경	1740年경	1900年경
총 길이	이	119	127	129	130
뒷 품		49	65	60	46
화 장		100.2	132	118.5	98
고 대		16	20	19	19
소매 길이	이	70	100	97	65
소매 넓이	이	33	52.4	65.2	58
진 동		24.4	34	33	33
수 구		28	23	28	26
겉섶넓이(上/下)		26.2/39.2	50	42	15/36
겉 섶 길이	이	89.8	92.5	105	98.5
안섶넓이(上/下)		6/19.4	30.4	31.2	8/25
안 섶 길이	이	84.2	88	86	92
깃넓이(겉/안)		35/	48/56	41.5	35/40
깃 길이	이	8.8	12.6	11.5	11
동 정 넓이	이	×	×	4.8	5
동정위치(섶에서)		×	×	12	12.5
고름 넓이	이	2.6	6.5	4	8
고름 길이	이	48	65	68.8	106/92
안고름(넓/길)		21	3.5/43	4/52	4/65
앞자락무 넓이	이	×	21	24.5	32.5
안자락무 넓이	이	22	31	30	45
뒷 트 임		94.5	97	98	97
뒷 트 임 상태		13cm정도 떨어짐	맞붙음	8cm겹침	2cm 겹침
뒷자락 밑 단 폭		50	97	59	51
등 바 대		.	32.4×5	58X8	31×46

24) 1995, 충북대학교 박물관 발행, 『우리나라 16, 17세기 출토복식』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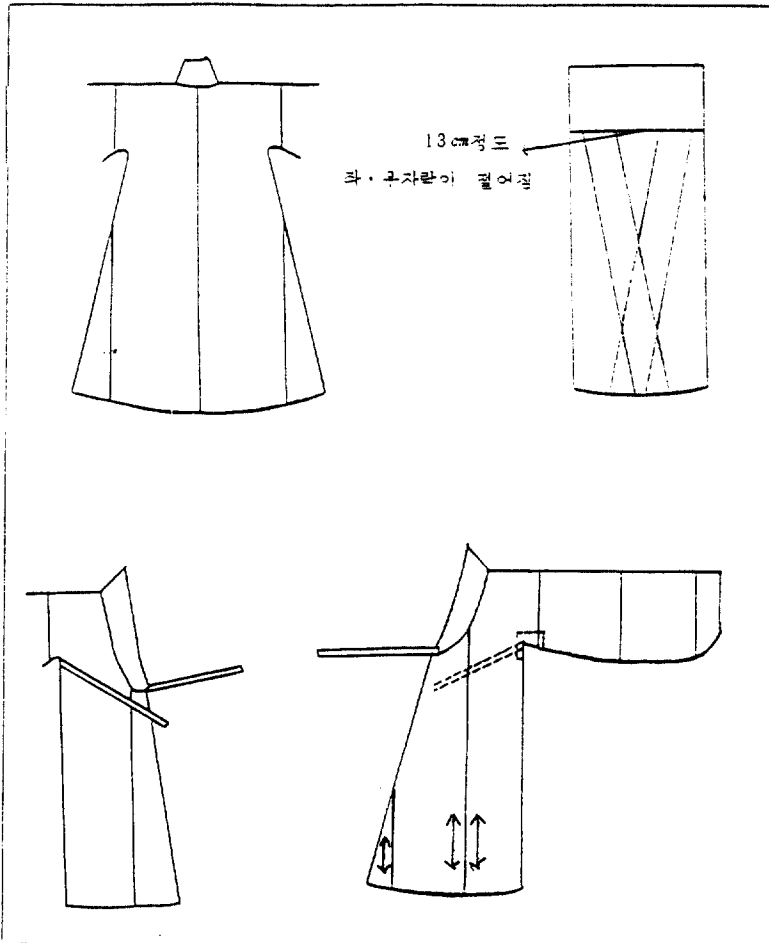


圖 7. 傳 朴將軍 道袍
 (출처 : 중요민족자료지정 조사보고서 8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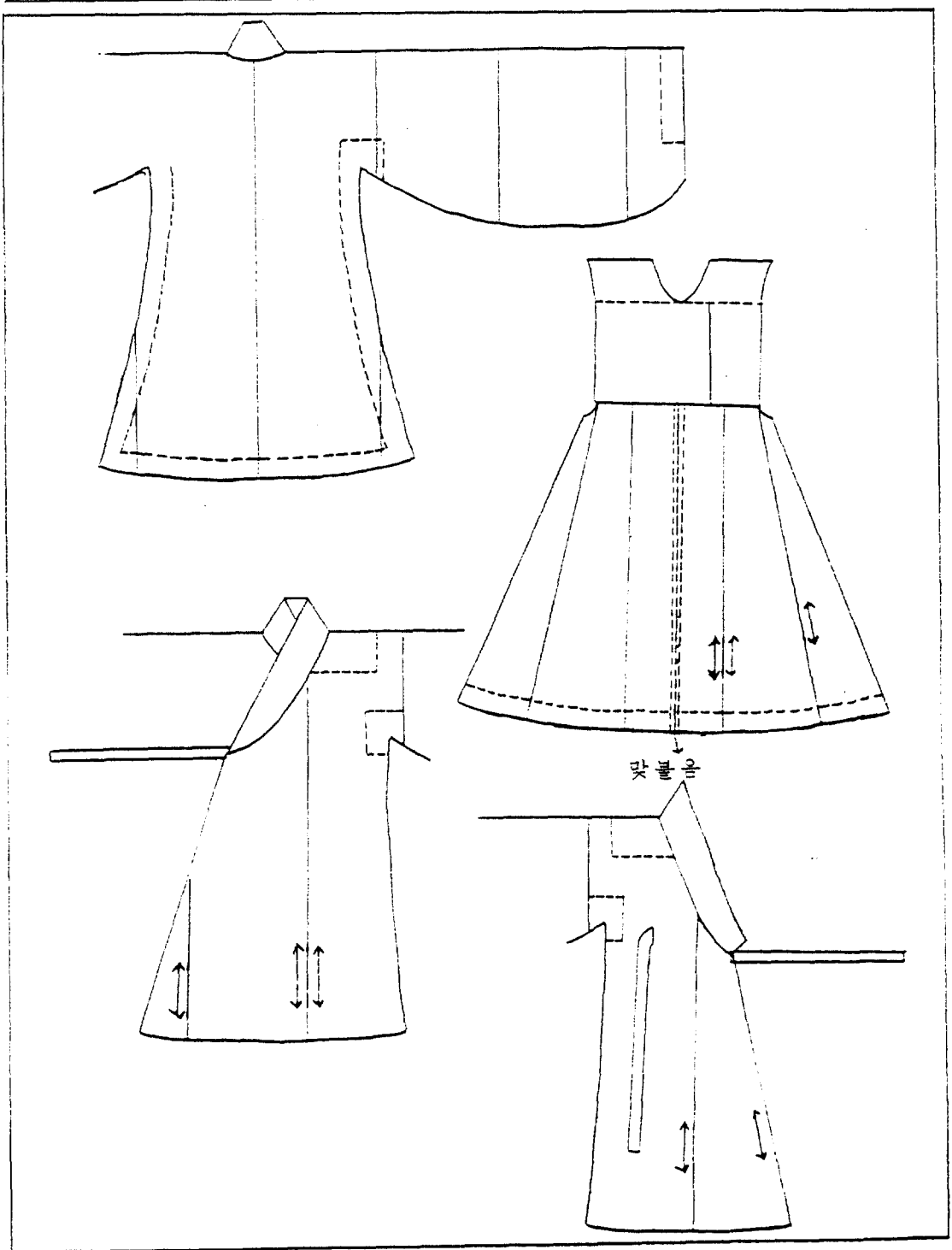


圖 8. 洪克家 道袍(실제의 1/20 축소)

(출처 : 安東大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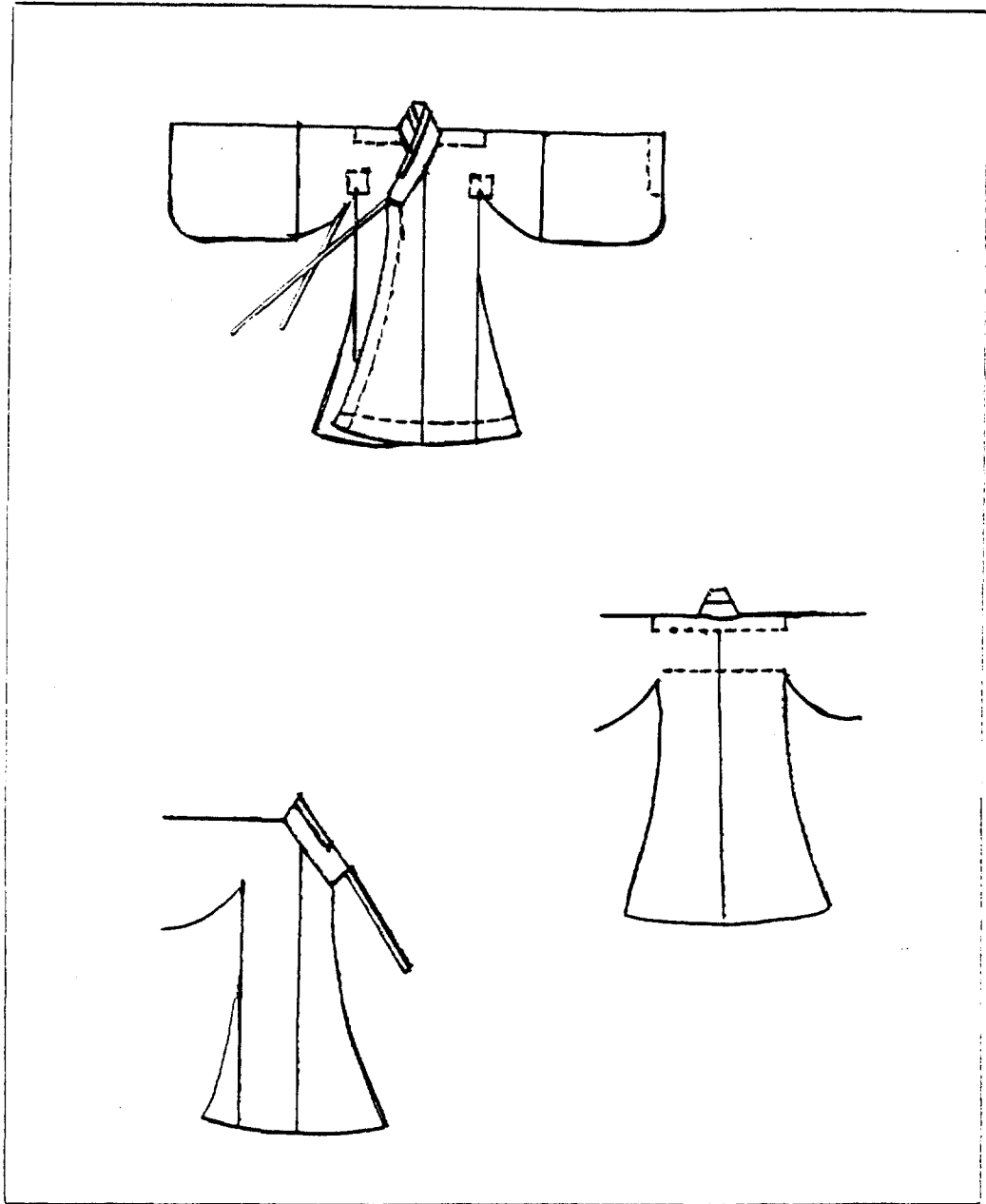


圖 9. 英祖大王 道袍

(출처 : 고복남, “조선시대의 일반 복식의 연구”, 「청주사범대논집」 第9,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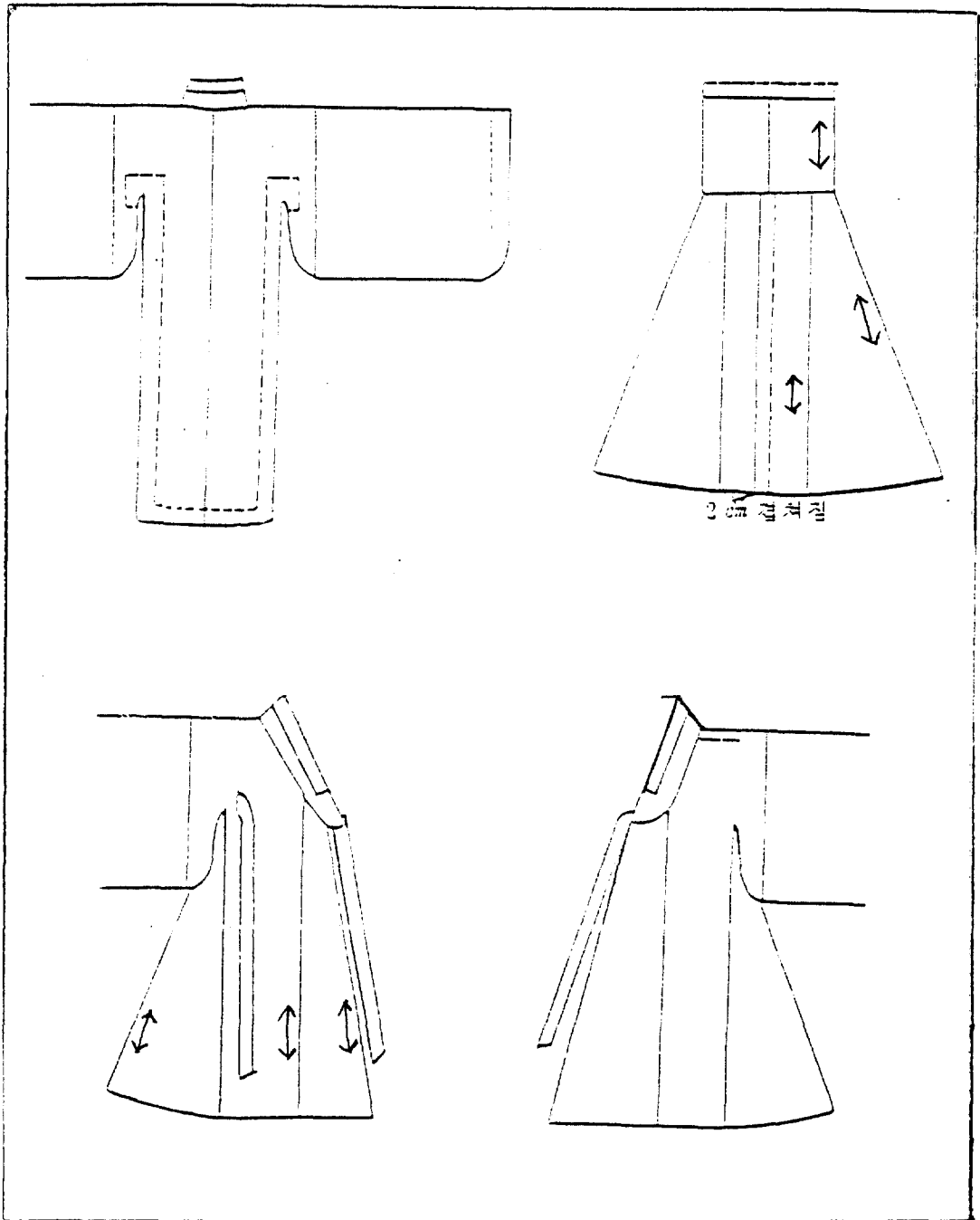


圖 10. 昌德宮 소장 道袍(실제의 1/20 축소)
(출처 : 「朝鮮時代 宮中服飾」)

安東이나 江陵에서는 道袍의 옷감으로 주로 삼베(麻)를 사용하였으나 서울이나 忠州에서는 삼베를 주로 壽衣로 사용하였고, 보통 때에는 주로 모시(紵)나 명주(紬)로 하였다. 安東 儒林인 洪克家의 道袍는 삼베로 되어 있으나, 英祖大王 道袍는 紗로 되어 있고 昌德宮 所藏의 道袍는 생모시로 되어 있다.

2) 色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靑·白 二色이 있는데 吉事 때에는 靑, 平時에는 白色이었다.²⁵⁾

惠園 申潤福의 風俗畫에서는 道袍의 色이 白, 玉, 淡褐色으로 分析되었는데,²⁶⁾ 傳 朴將軍 道袍는 素色이다.

洪克家 道袍는 傳 朴將軍 道袍와 같이 素色이나 英祖大王 道袍는 淡靑色이며 昌德宮 所藏 道袍는 白色이다.

3) 소매

道袍의 소매는 <圖 11>과 같이 窄袖이던 것이 점차 넓은 두리 소매로 되었다.

傳 朴將軍 道袍는 初期에 착용되었던 것이어서 그 소매가 後期의 두리 소매 樣式과 달리 매우 좁고 배래도 밋밋하다.

4) 깃

道袍의 깃은 칼깃(반달깃), 당코깃, 둥근깃(두루마기깃)의 順으로 多樣하게 변화하였는데, 傳 朴將軍 道袍, 洪克家 道袍의 깃은 칼깃이고, 英祖大王의 道袍는 당코깃이며, 昌德宮 所藏의 道袍는 둥근깃이다(圖 12).

5) 옷고름

道袍의 고름도 좁고 작던 것이 점차 넓고 길어지면서 장식성이 많이 加味되었는데, 傳 朴將軍 道袍의 고름은 좁고 짧다.

6) 걸섶과 걸자락

傳 朴將軍 道袍의 걸섶에는 애기섶을 이어 달아 40cm나 되고 2겹의 뒷자락 중 걸자락에

도 양측 下端에 걸대기를 하였다.

洪克家 道袍에서도 2겹의 뒷자락 중 걸자락의 양측 하단에 걸대기를 하였으나 그 이후의 것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7) 무

傳 朴將軍 道袍는 後期의 다른 道袍와는 달리 앞자락에 무가 없는데 입었을 때에는 2겹의 뒷자락 중 안자락이 있는 무가 앞자락 쪽으로 밀려나와 앞쪽에 여유를 주게 되는 것 같다.

8) 뒷트임

傳 朴將軍 道袍는 등바대 밑에서부터 트였는데 左右의 자락이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다.

9) 화장

傳 朴將軍 道袍의 화장은 저고리보다 약 20cm가량 길다.

10) 展衫

傳 朴將軍 道袍는 뒤에 展衫이 붙어 있다(圖 7). 展衫의 구성과 그 트임이 아직 불완전하여 그 구성이 아직은 정착되지 아니한 形成段階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1) 附屬物

道袍와 함께 着用된 冠에는 程子冠, 四方冠, 東坡冠, 儒巾이 있으며 外出時에는 黑笠을 着用하였다. 그리고 道袍를 입고 細條帶를 띠었다.

道袍와 함께 착용한 신은 太史鞋, 발막신, 장신, 分套鞋, 黑皮鞋, 雲鞋 등이 있다. 그러나 傳 朴將軍 道袍 遺物에는 위와 같은 附屬物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12) 用途

傳 朴將軍 道袍가 出土될 당시 團領, 裘衣, 髦衣, 直領袍, 東方形袍 등 7점이 함께 出土되었는데, 위 道袍는 뒷폭이 49cm, 화장이 100.2cm, 소매넓이가 33cm, 진동이 24.4cm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屍身이 입고 있던 壽衣라기 보다는 평소 입었던 道袍를 補空品으로 넣어둔 것으로 보인다.

25)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四十五, 道袍辨證說.

26) 朴京子, 『惠園 風俗畫에서 본 朝鮮後期(18C)의 一般服飾研究』, 아시아 복식학술회의 발표요지, 1982, pp.29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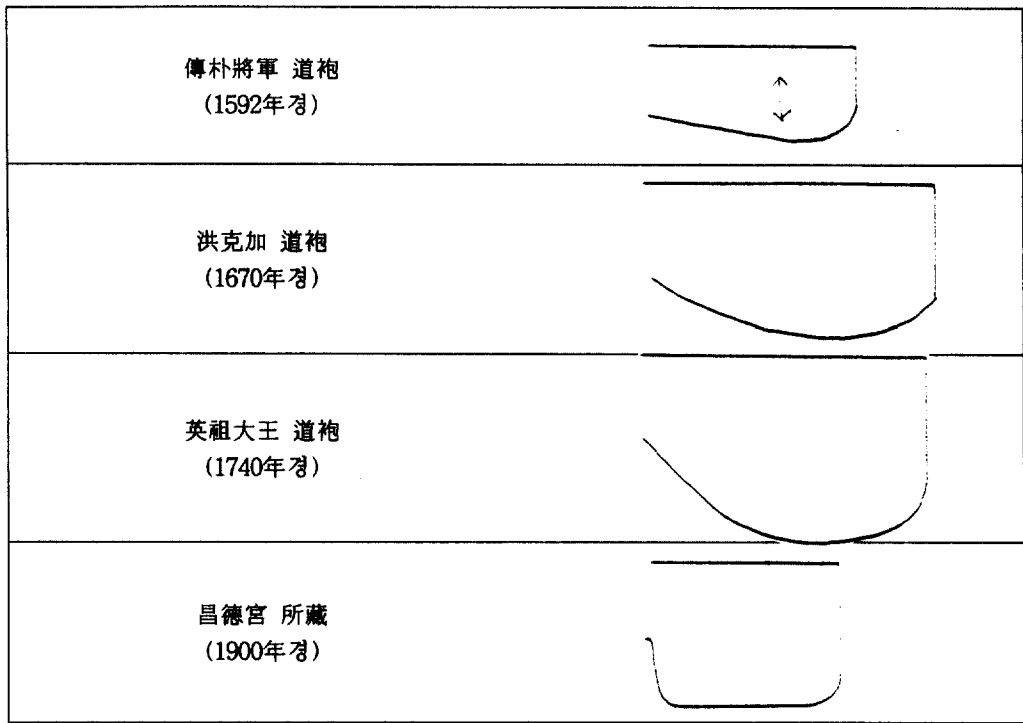


圖 11. 道袍 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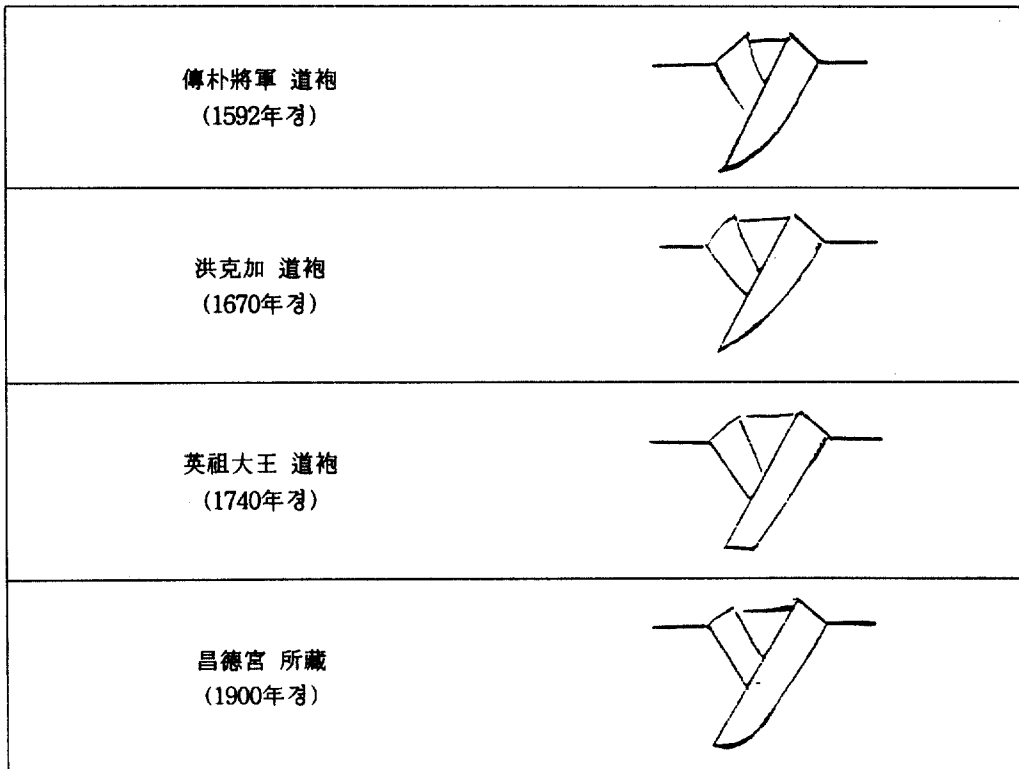


圖 12. 道袍 깃

5. 傳朴將軍 道袍의 特徵

傳朴將軍 道袍는 現存 最古의 道袍로서 道袍 生成初期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後期의 道袍에 比하여 소매, 고름, 깃, 무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1) 傳朴將軍 道袍의 소매는 後期의 두리 소매 樣式과 달리 매우 좁고 배래가 뭏뭏하다.
- (2) 傳朴將軍 道袍의 고름은 後期에 比하여 좁고 짧다.
- (3) 道袍의 깃은 칼깃, 당코깃, 둥근깃의 順으로 變化하였는데, 傳朴將軍 道袍의 깃은 칼깃이다.
- (4) 傳朴將軍 道袍는 그 이후의 道袍와 달리 2겹의 뒷자락 중 겹자락의 양측하단에 겹대기를 하였다.
- (5) 傳朴將軍 道袍는 後期의 道袍와 달리 앞자락에 무가 없다.

6. 中原地方의 道袍에 관한 民俗的 特徵

高宗 21年 甲申衣制 改革 때 中致莫, 弊衣, 道袍, 直領을 폐하고 두루마기를 입게 한후 점차 道袍가 사라졌으나, 日帝時代에도 一部人事가 道袍를 禮服으로 입었고²⁷⁾ 1948年 崔南善의 「朝鮮常識」에 “道袍는 最近에 다른 禮服이 다 浸廢함과 함께 男子 唯一의 禮裝인 觀을 呈하고 있다.”고 하여 그 당시에도 계속하여 道袍가 禮服으로 입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또한 現在 일부 지방에서는 舊式婚이나 喪祭의 服飾으로 착용되고 있다. 그런데 道袍의 着用實態는 1982年의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에 의하면 地方에 따라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2겹의 뒷자락 중 안자락의 트임의 차이였다.

일반적으로 道袍는 뒷트임이 있어 便利를 구하고 그 트임 사이로 속옷이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겹자락이 한 자락 더 있는 것으로 알아왔다. 그러나 安東과 江陵지방에서는 道袍가 뒷트임이 없는 형태이고 서울과 忠州地方에서는 도포가 뒷트임이 있는 형태이다.

특히 忠州지방에서는 손가락이 세 개 들어갈 정도로 간격을 두어 左右자락이 서로 붙지 않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傳朴將軍 道袍와 相通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道袍의 뒷트임 有無는 안자락 부분이라 외부에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옷감의 질약, 縫製의 便利 등에 따라 자유로이 한 것으로 보인다.²⁹⁾ 忠北 淸原郡에서 出土된 1592年頃 착용추정되는 傳朴將軍道袍나 安東 儒林인 洪克家가 1670年頃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道袍가 모두 뒷트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生成初期에는 道袍에 뒷트임이 있었으나 後代에 이르러 옷감의 질약, 縫製의 便利 등에 따라 이와 같은 지방적 차이가 생겼다 할 것이다.

또한 忠州地方의 特徵은 다른 지방에서는 안자락의 양옆에 댄 것을 “큰 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무가 아니라고 하였고, 한 폭 그대로를 옆선 부분을 약간 어긋하게 올려내어 앞 무와 만나는 옆선을 어순 울로 하거나 어순 울로 하면서 중간에 다시 주름을 넣는 경우가 있다.

서울과 忠州지방에서는 道袍의 옷감을 보통 때는 주로 모시나 명주로 하는 것이나 壽衣로 쓸 때에는 삼베를 사용한다.

IV. 結 論

中原地方에서 출토된 深衣, 道袍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中原地方의 傳統의인 衣生活을 推論하여 보려고 하였으나 文獻의인 資料도 없어 中原地方에서 發掘된 深衣, 道袍 遺品만으로는 中原地方의 傳統의인 衣生活을 推論하기가 어려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深衣는 제작에 관하여 制度化되어 있어 柳麟錫 深衣가 그 형태·구조에 있어 同時代의 다른 深衣들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柳麟錫 深衣가 同時代의 다른 深衣들과 비교하여 솔기선 처리, 緣의 넓이, 여밈 方法에 있어 特色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中原地方의 深衣에 관한 特徵이라고 斷定할 수 없다. 또한 傳朴將軍 道袍도 道袍 生成初期에 制作되었기 때문에 後期의 道袍에 比하여 소매, 고름, 깃,

27) 金東旭, 前掲書, p.3

28) 崔南善, 「朝鮮常識」, 1948, p.121

29) 趙權姬, 「道袍에 관한 研究」1986.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8, 55.

무 등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그 당시 中原地方의 道袍에 관한 특징이라고 斷定할 수 없다.

그러나 中原地方은 전통적으로 서울과 風俗이 대체로 같으며 그 衣生活 또한 서울과 대체로 같다.

이는 中原地方이 三國時代에 百濟, 高句麗, 新羅가 각각 한 차례씩 支配하게 됨으로써 佛敎文化를 바탕으로 한 混合文化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문화는 統一新羅에 의하여 定着되었으며, 高麗에 의하여 발전되었으나, 高麗末期 이후 朝鮮朝에 들어와서는 性理學이 傳來되어 발전되면서 많은 儒學者들을 輩出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落鄕하여 생활하던 선비들도 많아지게 되어 士大夫 文化로 바꾸어지게 되었던 歷史의 이유³⁰⁾와 서울에 가깝다는 地理的 여건으로 인한 것이다.³¹⁾

앞서 본 바와 같이 中原地方의 道袍에 관한 民俗的 特徵을 보더라도 다른 地方과 달리 서울과 같다. 安東과 江陵지방에서는 道袍가 뒷트임이 없는 형태인데 반하여 서울과 忠州에서는 道袍가 뒷트임이 있는 형태이고, 安東과 江陵지방에서는 道袍의 옷감을 주로 삼베로 하였으나 서울과 忠州에서는 道袍의 옷감을 보통 때는 주로 모시나 명주로 하고 壽衣로 쓸 때에는 삼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李弘植(1983). 增補 新國史辭典. 청아출판사.
- 金顯吉(1984). 中原의 歷史와 文化遺蹟. 靑芝社.
- 忠州博物館(1997). 第5回 博物館特別展 忠州의 古文書(Ⅱ).
- 韓國文化財保護協會(1982). 韓國의 服飾. 三和印刷株式會社.
- 韓國民俗資料綜合調查報告書(1981).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편). 서울신문사 출판국.
- 충북대학교 박물관(1995). 우리나라 16, 17세기 출토복식.
- 국립민속박물관(1995). 한국복식 2천년.
- 金明淑(1992). 忠北中原仰城出土服飾의 試論的 考察. 博物館誌.
- 李明姬(1977). 道袍에 관한 研究. 한국의류학회지, 1(1).
- 방현미(1987). 道袍에 관한 고찰.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趙權姬(1985). 道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1998). 道袍形態의 전래와 발전 양상에 관한 실증적 고찰. 韓國服飾學會 服飾, 36.
- 鄭惠敬(1990). 深衣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李海英(1988). 韓國 直領交衽式袍에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劉頌玉(1984). 朝鮮時代 出土服飾을 通해 본 男子袍研究. 大東文化研究, 18輯.
- 李相恩(1995). 古代韓·中服飾의 襪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金仁淑(1974). 深衣考.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正玉(1980). 冠禮服飾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 安東大學校博物館(1996). 安東地域傳統服飾.
- 崔南善(1947). 朝鮮常識. 東明社.
- 韓元震. 南唐草稿.
- 朝鮮王朝實錄(1955). 國史編纂委員會.
- 金東旭(1973).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史.
- 李圭景(1959).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文化史.
- 李鏗(1844). 四禮便覽. 木板.
- 王宇清(1978). 中國服裝史綱. 台北 中華大典編印會.

30) 金顯吉, 前掲書, p.187

31) 李重煥, 『擇里志』九 忠清道편 擇里志에서도 「충주읍은 한강 상류에 있고 물길이 왕래하기 편리한 까닭에 京城의 士大夫가 옛부터 이곳에 와서 살 곳을 정한 바가 많다」고 하였다.